코로나 위기 속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

4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19% 증가

유자차·김치·김·전복 등 수출 호조

한국식품 선호도↑·비대면 활성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1억65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치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민선 7기 출범 전인 2017년 3억4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6200만 달러로 연평균 10.8%씩 증가해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유자차, 김치, 장류와 김, 전복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량이 늘고 있다.

품목별로 파프리카가 22.8% 증가한 310만 달러, 유자차가 24% 증가한 705만 달러, 김치가 31.6% 증가한 349만 달러, 김이 25.9% 증가한 5896만 달러, 전복이 19.8% 증가한 1075만 달러 등이다.

신선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봄철 이상기온과 긴 장마 등으로 작황이 저조해 배 등 일부 품목 수출이 줄었으나, 올해 작황이 양호한 파프리카의 생산량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다.

농식품 수출은 코로나19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알려진 유자차, 김치, 장류가 각각 24%, 31.6%, 15.1% 증가했다.

수산식품인 김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소비심리 상승, 미국의 조미김 인기 지속으로 25.9% 늘었고, 전복은 일본, 미국, 대만 등의 수출 증가로 19.8%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이 14.5% 증가한 3157만 달러, 중국은 21.8% 증가한 2827만 달러, 러시아는 119.5% 증가한 480만 달러 등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남방 지역은 한국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져 수출이 늘었고, 신북방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는 경기회복 영향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1위 대상국인 일본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과 지자체의 외식업계 영업시간 단축으로 5.7% 감소한 4134만 달러에 그쳤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농수산식품 수출 상승세를 잇기 위해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과 해외 상설매장 지역을 확대하고,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인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까지 전남지역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4% 늘어난 11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중국 정부의 철강 수출 제한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환 기자

'스리랑 양파 드세요' 28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직원들이 '스리랑 양파'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 식품관에서 토종 양파 품종인 '스리랑 양파'를 판매한다.

광주 땅값 1위…광주우체국 맞은편 ㎡당 1590만원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보다 12.36% 상승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의 공시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 맞은편으로, ㎡당 1590만원, 3.3㎡(1평)당 5256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4년 새 40% 가량 상승했다.

가장 저렴한 곳은 광산구 왕동저수지 인근 임야로 ㎡당 841원, 3.3㎡당 2780원으로 평가됐다.

광주시가 31일 공시할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땅값은 전년보다 12.36% 올랐다. 전국 평균은 9.95%다.

공시 대상은 37만7000여 필지로, 국토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13.61%, 남구 13.60%, 북구 11.65%, 서구 11.34%, 동구 10.43% 순이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과 개발지역 등의 땅값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6월30일까지 인터넷 또는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통지받을 수 있다.

이수원 토지정보과장은 30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인터넷이나 관할 구청에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카뱅, ATM 수수료 1464억 면제했다…6개월 더 연장

올해 12월31일까지 수수료 무료

카카오뱅크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계좌개설 고객과 미니(mini) 고객은 전국 편의점, 은행 등에 설치된 모든 ATM에서 입출금·이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ATM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원화 이체와 송금도 수수료 면제다.

올 1분기까지 카카오뱅크가 고객 대신 지급한 ATM 이용 수수료 비용은 1464억원이다. 지난 2017년 59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318억원, 2019년 430억원, 지난해 521억원, 올해 1분기까지 136억원을 지원했다.

김민정 기자

커지는 홈 베이킹 시장에 잼 산업도 덩달아 웃는다

국내 잼 시장 규모 최근 5년간 연평균 0.4% 성장하며 정체

홈카페·베이킹 열풍에 지난해 3.3% 성장…올해도 증가 예상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식사 대용 빵 소비가 급증하면서 빵에 발라먹는 잼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잼 시장은 농협(6.2%)을 필두로 동서식품(5.8%), 대상F&B 복음자리(4.8%), 오뚜기(3.6%), 누텔라(2.5%) 등이 형성하고 있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잼류 시장 규모는 홈카페, 홈베이킹 등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힘입어 전년 보다 3.3% 증가한 3522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4%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잼류 시장 규모는 평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더욱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식품업계의 예상이다.

딸기잼과 땅콩버터가 꾸준한 인기를 누린 가운데 와플과 잘 어울리는 사과잼, 저당·저칼로리 트렌드를 반영한 무설탕잼, 저칼로리잼 등이 주목받았다.

제품별로는 무화과, 아몬드, 라즈베리 등도 지난해 판매 순위가 올랐다.

1kg 이상의 대용량제품, 편리하게 짜먹을 수 있도록 패키지에 차별화를 둔 제품들도 지난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았다.

국내 식품업계는 지난해 연말 잼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대상F&B 복음자리는 지난해 딸기잼 판매가 늘어나자 국내산 달걀의 고소함과 코코넛밀크의 달콤한 맛을조합한 카야잼 플레인과 카야잼 스위트 등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카야잼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잼이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카야잼을 바른 토스트에 버터를 올린 카야토스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공략한다.

홈 베이킹, 홈 디저트에 관심이 많은 20~30 여성 또는 10대 자녀를 둔 주부들이 빵·크래커 등에 잼을 발라 간단한 아침 식사나 디저트로 준비하기 좋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풀무원 올가홀푸드는 '마이스터 유기농 블루베리잼'을 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 등을 선호한다는 것을 고려했다.

마이스터 유기농 블루베리잼은 제주도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블루베리의 과육이 살아 있어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주호섭 올가 마이스터가 재배한 우수한 품질의 블루베리만을 사용했다.

쫀득한 점성으로 빵과 쿠키 등에 얹어 먹어도 흘러내리지 않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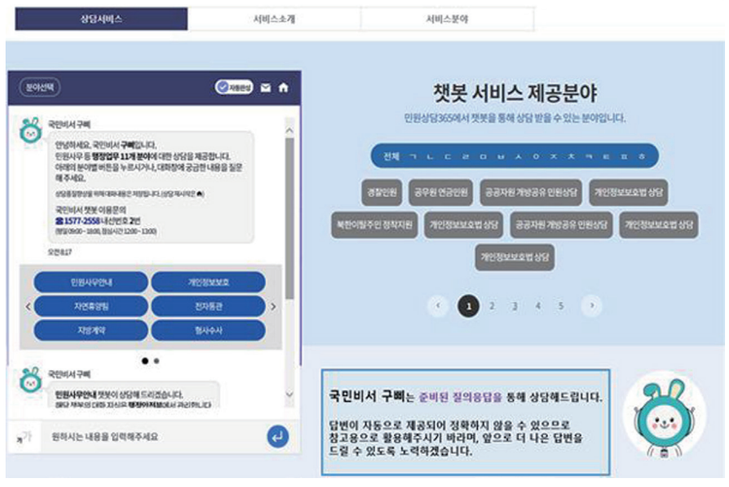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해도 좋고, 따뜻한 물에 소량 풀어 차로 즐기거나, 얼음과 함께 갈아 스무디 음료로 섭취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집콕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나만의 홈 카페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잼을 비롯해 홈 베이커리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백신접종 등 행정정보 24시간 상담 챗봇 서비스 제공

오늘부터 시범 운영…연말까지 21종 확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안내 등 각종 행정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구삐'가 24시간 채팅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구삐 챗봇'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삐 챗봇 서비스는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24시간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채팅 상담을 제공하고 간단한 민원사무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도 안내하는 서비스다.

본격 서비스에 앞서 답변 품질을 높이고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국민비서 홈페이지 가입자는 상단 '상담서비스'에 접속해 8개 기관 11종 행정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비롯해 통일부,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청은 해당 기관의 업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바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숲나들e'는 6월14일부터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다.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5000여종 민원안내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문의는 인공지능 스피커인 'KT 기가지니', '네이버 클로바'와 연계해 상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연말까지 상담서비스를 21종으로 늘리고 해당 분야에 대해 PC와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국민비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유나 기자